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 보성군, 내달부터 본격 과수 병해충 방제 추진

### 검역병해충 사전 차단하고 풍년 농사에 도움



보성군은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과수 병해충 방제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제 대상은 사과 수 화상병과 △사과곰보병이며, 매년 문턱면 일대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갈색날개매미충도 포함 돼 있다.

이번 방제를 통해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검역병해충을 사전 차단하고 풍년 농사에 도움을 준다는 의도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월 검역병해충과 들발해충의 피해 예방을 위

해 '과수 병해충 방제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방제면적 및 방제약제와 방제일정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군은 올 겨울의 날씨가 작년에 비해 따뜻한 점을 감안하여 추진협의회에서 선정된 약제를 2월 말까지 농가에 우선 공급하고 있다.

방제 시기는 사과 화상병의 경우 개화시기에 맞춰 3월 15일 ~ 20일 △사과곰보병은 전염원인 진딧물의 발생시기인 4월 15일 ~ 20일 △갈색날개매미충은 약충의 부화기 예상되는 4월 15일 ~ 20일로 잠정

결정 되었으며, 적기 방제를 위해 기온 변화를 주시하고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검역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과수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해외 수출 및 국내유통이 모두 어려워지고 감염주는 즉각撲殺 및 매몰 처리해야 하며, 향후 1년간 매몰된 자리에 기주식물의 재배가 불가능하다.

또한, 최종 방제 후 3년간 방제구역 밖으로 묘목, 접수, 삽수 등의 이동이 금지되어 상시적인 예방로 사전 방제를 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갈색날개매미충은 2014년 보성군에 최초로 발견되어 긴급방제를 실시하였으며, 그 후 매년 민관합동으로 공동방제일을 설정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검역병해충 발생 피해를 한 농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과 관련 작목 재배농가들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예방이 아주 중요하며 들발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올해도 공동 방제의 날을 설정하여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 구례군, 과수 정지전정 현장교육 박차

### 과원환경 개선하고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조성



구례군은 지난 20일 광의면 현지

과원에서 과원환경을 개선하고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과수 정지전정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나무의 수형구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농업인과 관계기관 등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장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교육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농업기술센터 박노진 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많은 교육생이 이번 현장 교육에 참석하여 열의가 높았고 구례 단감 탐프루트 단지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과수 정지전정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신청은 구례군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 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구례=박진호 기자

## 광양시, '극한직업' 등 유명 영화 촬영지로 주목해

### 택시운전사·명량 등 촬영지 급부상...관광객 유치 기대 커

광양시가 국내 유명 영화감독들의 촬영이 잇따르면서 영화 촬영지 부상하고 있다.

시는 최근 개봉 첫 주에 300만 관객을 돌파하고 현재까지 1500만 명에 육박하는 관객 몰이로 압도적인 흥행 집주를 이어가고 있는

영화 '극한직업'의 엔딩장면이 작년 5월에 광양항 물류창고에서 촬영되었다는 것.

'극한직업'은 마약반이 범죄조직을 잡기 위해 치킨집을 인수하고 위장장업을 하며 벌어지는 코미디를 그린 영화다.

그 동안 광양 지역에서는 택시운전사, 명량, 부산행 등 관객 1천만 명을 돌파한 흥행 영화들이 촬영했으며, 지난해에는 영화 '이웃사촌', '레전드' 등 촬영되는 등 꾸준히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광양=김승호 기자

## 광양시, 2019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열람 실시

### 내달 17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나 전화로 열람 가능

광양시는 2019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인 토지특성의 사전 열람을 25일부터 오는 3월17일까지 실시한다.

토지특성 사전열람 대상 필지는 184,517필지이며, 열람방법은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을 방문하거나 전화(☎061-797-2767, 288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전열람 기간에 제기된 의견은 민원인과 함께 현지를 방문하거나 항공사진 등을 통해 지가결정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민원인 의견의 적정여부를 검토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결정하게 된다.

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 가격

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되는 각 개별토지에 대한 지목, 토지이용상황,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도로와의 접면 등으로 매년 조사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시스템에 입력된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하여 비준표에 의해 가격비율을 산출하고 각 필지별 m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광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사전 열람제도와

결정·공시 추진일정에 따라 홍보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로 하여금 충분한 이해와 의견 제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공정하고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 '2019순천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 박차

### 순천 여행 상품 공모

순천시가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순천 관광산업 발전과 순천 방문 관광객들의 여행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순천 여행 상품'을 공모한다.

공모내용은 순천지역의 유료 관광지를 포함한 여행 상품으로 구성해야 하며, 응모자격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을 등록한 업체면 가능하다.

공모전은 지난 15일부터 사업비(5000만원) 소진시까지 진행되며, 응모신청은 순천시 홈페이지(https://www.suncheon.go.kr)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며 직접 관광과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결과는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에 개별 통지한다.

시는 이번 공모를 계기로 순천시 보유한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드라마촬영장, 낙안읍성, 선암사, 송광사, 기독교역사박물관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품격 높은 여행상품 개발과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1천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여행상품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단체 관광객 유치 및 MICE 유치 인센티브 외에 주요 관광지 유료 입장료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등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여행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순천=황경석 기자

## 순천시, 중흥건설 방문

### 삼산중 이달 중 착공 합의

순천시는 허석 시장이 최근 신대 지역 '삼산중학교 이설 문제' 해결을 위해 중흥건설 회장을 직접 찾아가 '신원지구 하수처리 시설과 연계하지 않고 조건없이 2월중 착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원지구 하수처리장 문제와 얽혀 난항을 거듭해왔던 신대 지역 중학교 건립사업이 내년 3월 정상 개교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

중학교 건립에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불래 2월중 착공하지 않으면 내년 3월 개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순천시의 중흥건설 양측이 학생들의 교육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된다.

허석 시장이 이처럼 직접 나선 배경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허 시장은 중흥건설을 방문하기 전날 해포면 시민과의 대화장에서 학부모와 주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삼산 중학교 정상 개교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의 걱정 어린 건의에 "2020년 3월 개교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바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순천=김승호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총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장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